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테크노미디어적 재구성*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부교수**

이 연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알바’노동 현장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찰 연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테크노미디어가 청년의 문화적 재기발랄함을 발산하거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문화적 유희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글은 미디어기술이 청년의 온라인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스마트 ‘유리감옥’으로 크게 탈바꿈 중임을 살핀다. 즉 청년 노동, 특히 ‘알바’노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미디어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노동과 활동,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알바노동의 중요한 일상이자 부분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청년들의 노동 현장 속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알바 현장에 대한 기초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상이 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과 국내 청년알바 노동현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독특한 국내 모바일노동 현실을 다층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억압적이지만 내면화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즉 오늘 청년 알바노동의 현실에는 비정규 노동의 체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일상 권력의 비공식적 노동 관리와 통제 문화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아로새겨진다고 파악한다.

K E Y W O R D S 청년, 모바일노동, 좀비노동, 알바노동, 비정규직, 카카오톡, 감시, 스마트폰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1914).

** kslee@seoultech.ac.kr

1. 들어가는 글: 청년, 노동과 테크노미디어

1990년대 말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노동 인구의 대량 해고와 노동 유연화를 중요한 자본 비용 절감의 효과로 활용해왔다. 그 효과는 다양한 형식의 비정규직 ‘좀비’ 노동자들의 양산이었다.¹⁾ 이로 인해 시장에는 영혼 없는 소모품의 일회용 노동자들이 넘쳐났다. 좀비 노동자는 존재론적으로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즉 자본주의 노동 인구의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이기도 하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대량 실업과 프레카리아트의 만성적 과잉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고정적인 기제가 되었다. 즉 한때 일시적으로 불경기에 나타나는 구조 조정과 고용 불안의 모습이, 이제는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반영구적 특성이 됐다. 부르디외(Bourdieu, 2003)의 유언대로, 오늘날 프레카리아트는 정규직 노동자 아래 폭넓게 존재하면서 일종의 ‘이중경제(dual economies)’를 떠받치는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했다.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첨단 기술의 세레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디지털부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연령대보다 현실 삶의 물질적 조건을 보자면 대단히 피폐한 프레카리아트이자 좀비 같은 신세대. 계급과 세대 수탈에 시달리다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처분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청년들 삶의 질곡들이 여간해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도 특징적이다. 사회적 약자 마냥 자살과 사고 등 극단적 삶의 희생과 포기에 의해 사회적으로 그 존재감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도시를 배회하는 유령과 같다. 각 사회마다 청년들은 다종다양한 생활 배경으로 엮여 있어서 단일의 계급과 계층으로 온전히 부를 수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경제적 불평등 요인이 이들 청년 노동자의 지위와 포개지는 경향이 커진다. 생애적 연령 사이클이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의 근거가 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동아시아 정치경제 상황 속 청년들 삶의 팍팍한 모습은 서로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청년의 삶은 고용 불안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지 오래다. 예를 들어, 중국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면서 주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층 ‘(농)민공(民工)’과 그들의 아들딸인 신세대 민공인 ‘신공런(新工人)’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흡사한 노동 환경에서, 아니 더 열악한 밑바닥 변경의 삶을 영위해왔다(윤종석, 2014; 정규식, 2016). 국내에서는 시간제 비정규직을 낮춰 부르는 ‘알바’, 그리고 정규직으

1) 자본주의 체제 속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식 ‘좀비’적 유비와 이의 구조적 수탈 방식에 대한 적절한 논의로는, Shaviro(2002) 참고.

로의 입성이라는 거의 가망 없는 꿈을 먹고 사는 ‘인턴’ 노동이 비정규직 청년 노동의 주를 이룬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피시방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넷카페난민(ネットカフェ難民)’을 포함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군 ‘프리터(フリーター)’들이 사무직과 서비스업계 ‘블랙기업(ブラック企業)’들에 의한 과잉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Mie, 2013, 6, 25).

동아시아 청년들의 저임금과 불확실한 미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안주하는 일본의 ‘사토리세대(さとり世代)’를 낳고 ‘병시파이(崩世代)’라 불리는 대만의 청년 ‘체념’ 세대를 키워왔다. 오늘날 도쿄와 타이베이의 젊은이들은 각기 미래를 체념하고 현재의 행복에 자족하는 ‘컨서머토리(consummatory)’화(古市憲寿, 2011/2014)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즉 ‘샤오웨이싱(小確幸)’이라는 소소한 오늘의 안락에 안주하는 소극적 삶을 살아간다(이광수, 2015; 林宗弘·洪敬舒·李健鴻·王兆慶·張烽益, 2011). 반면 국내 청년들은 ‘삼포세대(三抛世代)’란 현실 체념과 삶의 포기에 덧붙여 사실상 살아갈 희망의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로 명명되고 있다. 삼포세대란 나이가 먹어도 제대로 변듯한 직장조차 얻기 힘들고, 사실상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를 뜻한다.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이와 같은 부정적 현실에 체념하거나 때론 절망의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가를 포기하는 대열에 합류하는 무리들로 갈리기도 한다(조문영 외, 2017).

기약할 미래 없는 동아시아 청년들은 변변한 주거 공간도 없이 부유하고 방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이완의 아파트 한 채를 5평씩 쪼개 사는 ‘타오팡(套房)’, 홍콩의 1.5 m² 인간담장이라 불리는 ‘큐비클(cubicle)’, 일본의 피시방 프리터 삶터인 ‘넷카페’, 한국의 원룸(텔)과 고시원/텔 등은 이들 청춘의 지친 몸을 누이는 임시 거처들이자 도시 속 삶의 고독을 감내하는 어두운 게토와 같은 곳들이 되고 있다(미스핏츠, 2016). 동아시아 청년들은 엄연히 제 국적을 가진 현재와 미래 경제인구의 주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국가는 그들의 익숙한 절망을 현실의 이슈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은 후미지고 표류하는 게토 안에서 사회의 접속 없이 홀로 방치돼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사회의 비공식 난민이나 다름없다.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 테크노미디어²⁾를 상시적으로 동반하는 모바일 문화는, 비공식 난민이자 좀비 처지의 동아시아 청년들이 오늘 현실을 버티는 몇 안 되는 중요한 기체 놀이이자 활력 구실을 해왔다. 과거와 달리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지닌 새로운 미디어 감

2) 이 글에서 ‘테크노미디어’는 디지털 콘텐츠 매개체이자 쌍방향 모바일 정보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통칭하며, 주로 청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논의를 집중해 보려 한다.

각과 감수성은 첨단기술의 시대 조건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제 청년들이 지닌 신생 기술에 대한 특정 신체 감각(예컨대, 촉각, 상황과 패턴 인식과 멀티태스킹 등의 진화)의 발달 면에서 보자면 이들은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도 크게 앞서 있다. ‘노오력(죽을힘을 다한 노력)’을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불구하고 ‘사회적 배신’(조한혜정 외, 2016)과 비정규직 착취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테크노미디어를 매개한 모바일 문화는 청년에게 일상을 위로하는 가뭄 속 단비와 같다. 거대하게 뒹뒹거리는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가상공간은 그들을 비슷한 취향, 놀이, 재잘거림 등으로 들뜨게 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처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2평짜리 고시원에서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게임방에서 청년들은 몸에 회로화된 전자 기기를 칭칭 감고 거대한 가상 던전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만의 자유를 만끽한다.

이 글은 현실의 감각을 벗어나 첨단 미디어기술로 휘감긴 채 가상세계의 던전들을 헤매는 청년들에 대한 예찬론이나 허무론이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동시대 테크노미디어 문화가 동아시아 청년에게 또한번 강력한 현실 세계의 세대 착취와 신체 통제의 일상화된 권력과 어떻게 공모하는가를 보는 비판적 현실론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알바노동 현장을 찾는 방법을 택했다. 사전 설문, 심층인터뷰와 참여 관찰 기록의 다면적 분석을 통해 청년노동의 새로운 국면을 탐색한다. 일종의 우울한 청년 관찰기이지만, 가장 정확한 절망의 현실 파악이 또 다른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우회로이기도 하다. 이 글은 오늘날 현실 속 청년 좀비노동의 강도가 가상 세계의 잉여노동 혹은 모바일노동의 영역으로 연장되고 확장되는 현실을 보는 데 집중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력 수탈의 물리적 강도가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일터 밖 시·공간에까지 청년 잉여력이 스마트폰 등 테크노미디어를 매개해 흡수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미시적 자장에서 청년 잉여력은 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최근 모바일 기술을 매개해 광범위하게 흡수되고 있음을 관찰한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던전의 내밀한 질서 아래 오늘 하루 시급을 위해 각자의 알바현장을 지키는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구조적 돌파구 없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청년 자율과 자립의 조건을 함께 고민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2. 청년 알바노동의 물질적 조건

국내 노동시장의 공식은 시간이 갈수록 수시 정리해고와 해고요건 완화에서부터 상시적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대규모 양산과 이의 수탈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국내 청년의 삶은 성장의 논리 아래 부조처럼 유동하고 최저 시급에 일희일비하는 ‘잉여인간’이 되어간다. 오

늘을 사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삶의 불안과 피로도가 극에 이르렀다. 이제까지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발화들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멘토링과 위로, 자기계발의 수사학의 효과가 유효한 듯 비춰진다. 예컨대, 취업준비생을 위로하는 김난도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2010)는 사회문제를 개별 주체들의 감정 힐링의 영역으로 격하시켰지만, 여전히 이는 아직도 스테디셀러로 군림하고 있다. 미래 없는 청년의 삶에 대한 기성세대의 조언들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때 〈조선일보〉 등 주요 보수 언론사들은 ‘사토리세대’와 ‘삼포세대’의 비관적 현실을 안분지족(安分知足)의 ‘달관세대(達觀世代)’란 중립적 용어를 발명해 내어놓고(김강한·임경업·장형태, 2015), 이 때문에 국내 노동 현실을 외면하면서 대중의 호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열정(熱情)과 페이지를 섞어 쓰면서 ‘열정페이’란 말로 청년의 노동 대가가 잠식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열정페이에는, 하고 싶은 일거리를 쫓으니 구직자는 급여에 얹매이지 말라는 ‘갑’의 경제적 횡포가 스며들어 있다. 국내 패션업계의 상징적인 한 디자이너는 열정페이란 명목으로 그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법정 수당을 미뤄오면서 사회적 구설수에 올라 공개 사과까지 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그 디자이너가 청년들에게 걸었던 마법의 주문은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는 인고의 노동철학이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 때부터 강조되던 ‘허리띠 졸라매기’식 산업 노동윤리의 새로운 세대 변형판인 셈이다(최태섭, 2013, 51쪽).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바로 전,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으로 크게 선전되고 입법화하려 했던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아버지들의 월급을 깎고 희생해 청년 실업자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판명났다. 또한 당시 박 전대통령 자신은 청년기금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내겠으니 고위 공직자들도 다들 알아서 각출해보라는 관료와 재벌 동원의 비공식 압박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의 발상은 청년고용의 안정적 제도화와 제대로 된 노동정책 마련을 무시한 채 노동문제를 시혜와 동정의 영역으로 환원해 버렸다.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통치권자의 당시 이와 같은 발언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당연히 통치권자가 바라는 ‘중동 진출’을 통한 청년 일자리 해결이란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해법임이 밝혀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월 현재 국내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9.8%를 넘어서었다. 비정규센터(2016)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 유형 중 비정규직 노동 비율이 44.3%에 달한다. 더군다나 청년의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해서 보면, ‘끼기’ 등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불법 노동관행이 여전히 있다. 이의 불법 공모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청년 알바 노동을 주로 활용하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함께 가담하고 있다. ‘알바’ 노동을 일반적인 노동 형태로 보지 않는 관행도 문제다. 독일어 ‘아르바이트(Arbeit, 노동)’와 학생의 합성어, ‘알바생’이란 호칭에서 보듯, 대체로 청년 노동은 노동자로서보다는 학생 신분에서 한때 거치는 부업이나 용돈벌이로 보는 사회 풍토가 아직 지배적이다. 이미 1990년대말 금융위기 이후로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기성세대는 이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2015년 ‘5,580원’, 2016년 ‘6470원’, 대한민국 알바노동의 법정 최저 시급이다. 국내 평균 담뱃값(4,500원)으로 치면 1.2갑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2013년, 최저시급 현실화를 위해 1만 원 시급 인상론을 외치다 갑작스레 ‘알바노조’(구 ‘알바연대’) 대변인 권문석씨가 숨을 거두었다. 당시 그의 죽음은 물론이고 그가 사망하기 전 1만 원 최저시급을 사수하려 했던 절규에 대해 언론과 사회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다들 외면하던 최저시급의 실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알바몬과 알바천국과 같은 구인·구직업체의 모바일 앱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크게 알려졌다. 알바몬 광고에 등장한 아이돌 가수 헤리가 언급했던 ‘최저시급 5580원’,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카피 문구로 인해서 서서히 대중의 청년 시급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상승했다. 당시 이 알바 구인 플랫폼 광고는 청년노동의 마이크로 고용주이기도 했던 영세업종 업주들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연히 알아야 할 청년들이 인지해야 할 노동법 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본금으로 근근이 유지되는 업주들에게 사실상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청년들의 노동 권리는 심적 부담이었고 그래서 사회가 외면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의 대기업 수탈 구조의 사다리 아래 존재하는 영세 업주들은 자신의 노동 비용 절감을 위해 청년 알바의 시급 인상과 노동권을 외면하는, 거대 프랜차이즈와 흡사하거나 그들과 공모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노력을 해서 현실을 바꿀 수 없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망은 미래 없는 ‘지옥 같은 나라’라는 뜻으로 ‘헬조선’이란 극단의 유행어까지 만들어내었다. ‘헬조선’이란 반도의 불지옥에서 노예처럼 좀비처럼 기업을 위해 생명을 연명하는 일회용 청년의 현재와 미래 없는 청년의 모습을 희화화한다. ‘헬조선’에 동조하는 청년들의 최종 목표가 반도로부터의 탈출, 즉 ‘탈조선’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의는 허무주의적이고 자멸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란 말의 세대문화적 확산은 청년노동과 청년 미래에 더 이상 생존 출구가 없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성 사회에 뼈아픈 자성을 일깨운다. 물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 고용의 불안정과 해고 노동자들의 수년간 고공 투쟁 등 전방위적 고용 악화 상황을 고려해보면, 청년 노동이 그 중 가장 힘들거거나 청년 문제가 자체가 ‘헬조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청년노동의 문제는 전통적 반노동 정서의 또 다른 연장선에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의 사회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층”(한윤희, 2013, 7쪽)이자 조만간 다가올 그늘진 근미래이기에 더 심각성이 있다.

계속해 이어지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 ‘30분’ 신속배달용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숨지고 다친 청년 알바들, 삶의 희망을 잃은 그들의 투신과 자살 등은 우리 사회 내부 비공식 난민들의 모습이다. 일례로, 구의역 지하철 2호선, 19살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지하철 ‘스크린 도어의 정치경제학’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생산현장 안에서 본청, 하청, 그리고, 하청의 하청이란 사다리 고용구조의 끝에 위치한 한 청년의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은 오늘을 사는 수많은 한국 청년들의 불안한 존재론적 파국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마치 중국 도시빈민 농민공들의 비운의 대물림된 자식들이 ‘신공런’이 되듯, 우리 노숙자들의 아들딸들인 청년 좀비는 일용직노동, 비정규직 하청노동, 하이테크 흡혈노동, 그림자노동, 열정노동, 인턴노동, 알바노동, 밑바닥노동 등 산업 시대의 대를 잇는 노동 수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지키려는 법적 최저시급은 노동현장의 최고시급이 되고, 현장에서 청년의 나이는 청소년과 섞이며 연령대가 점차 내려간다.³⁾

오늘의 청년들은 그렇게 좀비이자 난민 아닌 난민이 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공식 난민이다. 국제적으로 나라를 잃거나 이를 포기한 국제 난민의 법적 지위만을 난민으로 봐선 곤란하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망각할 때 청년들은 스스로 보트피플이 되려 한다. 오늘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보트에 오르는 ‘희망난민’에 가깝다. 예컨대, 후루이치 노리토시(古市憲壽, 2010/2016)는 〈희망난민〉에서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존재론적 지위를 잘 간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글로벌한 청년 삶에 관한 한 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 청년의 미래 희망과 기대감이 82%에 육박하는 반면, 일본이나 핀란드의 청년들은 반대로 수치가 대단히 낮은 수치 조사를 인용해 보여줬다. 그는 한국 청년의 상황이 더욱 더 비극적이라 봤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클수록 이에 비례해 현실의 자괴감과 박탈감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다른 어느 곳보다 꿈과 현실이 크게 어긋나 고뇌하는 청년 존재가 대한민국 ‘희망난민’, 동시대 청년의 모습이라 본 것이다.

3. 청년 ‘모바일 노동문화’ 연구, 출발과 방법

대한민국을 사는 청년들이 감내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중 가장 독특한 면모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년 알바들의 노동 양상이다. 현실계의 청년들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쉬는 동안에 보통 ‘잉여’ 활동을 한다. ‘잉여’란 한때 청년 스스로 알바, 실업이나 무직에 처한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다. 이제 기업가나 관리자는 청년들이 무언가를 하며 놀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 즉 청년 ‘잉여’의 여분 시간, 그리고 그들이 알바 후 쉬려는 여백의 공간까지도 취하려 한다 (이희은, 2014). 지금부터는 이처럼 바닥에 이른 알바청년들이 ‘잉여’적 생존조건 속에서 어떻게 미디어 테크놀로지, 특히 모바일 환경과 관계 맺고 있는 지를 살피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테크노미디어로 매개되는 알바노동의 존재 형태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적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 알바들의 노동 활동이 갈수록 휴대폰에 더욱 더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이 글이 지닌 문제의식의 출발은 여기에 있다. 먼저 이 글은 청년 알바 현상의 테크노미디어, 특히 휴대폰에 의한 노동문화의 변화와 재구성을 나타내는 말로 ‘모바일 노동문화’란 대표어를 쓰고 이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모바일 노동문화는 학문적 위치를 그리자면 전통적 노동사회학이나 비정규직 노동 연구, 청년과 세대문화 연구, 그리고 모바일 미디어 연구가 중첩적으로 연동하는 학제간 영역이다. 사실상 이와 같다 보니 모바일 노동문화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선행 연구를 안팎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다행히 쉰(Jack Qiu, 2009)의 저술 정도가 이와 같은 모바일미디어연구-비정규직노동연구-동아시아 지형이라는 다학문적 관점에서 중국의 모바일 노동문화 현실을 거의 유일하게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특징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관리자의 휴대폰을 매개로 해 벌어지는 원격 작업장 감시는 물론이고 휴대폰을 매개해 새롭게 구성되는 노동 강도의 내밀한 확장 방식, 새로운 청년 알바의 휴식문화와 비가시적 착취 행태 등이 어떻게 생성, 변형되어 미묘한 비정규직 노동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로부터 비정규 노동문화 자체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살핀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관찰 연구 결과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청년 ‘모바일 노동문화’ 양상과 알바 청년들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대해 묻는 온라인 설문(총 161명 가운데 유효 응답자 118명), 청년노동 활동가를 포함한 각 3명 3그룹의 심층 인터뷰(FGI), 그리고, 마지막으로 5명의 알바 청년들에 대한 참여관찰 기록과 후속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애초 이 연구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수행되는 노동문화의 새로운 특성을 살피기 위한 기초 자료의

표 1. 온라인 설문 응답자들의 주요 특징

성별	남 (65명)	여 (53명)
주거 형태	부모 동거 (67명)	독립 거주 (52명)
조합가입 여부	조합원 (63명)	비조합원 (55명)
통신비 납부 방식	부모 등 대납 (31명)	자력 납부 (87명)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	가능 (103명)	불가능 (15명)
근무 중 부당대우 경험 여부	예 (96명)	아니오 (49명)
시급 평균 (유효응답 96명)	8,780원	
월급 평균 (97명)	720,200원	
통신비/월급(%)	9.46%	
통신비(매달) 평균	68,000원	

*자료: 청년 알바들의 기초설문 조사 내용에 대한 총 118명의 유효 설문 응답자의 분석치 (2014)

수집과 내용 파악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관찰 결과물 가운데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청년노동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주로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보기 위해 본 글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서 실제 노동현장에서 알바청년들이 취하는 모바일노동의 독특한 특성들을 착목해 보았다.

첫 번째로, 온라인 설문은 청년 알바노동자들의 모바일 미디어를 매개한 기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피기 위한 방도로 2014년 2~4월 약 3개월간 인터넷에서 진행했다. 주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구 ‘알바연대’)의 도움을 받아 이들 청년 회원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참여 응답자들의 설문을 수거했다. 유의미한 설문 샘플링을 확보하기 위해서, 118명의 유효 설문 인터뷰 대상자들(남성: 65명, 여성: 53명) 가운데 비조합원 일반 청년노동자의 비율을 거의 절반인 47% 정도까지 엇비슷하게 확보했다. 이는 무엇보다 노동 분쟁의 사안이나 부당 노동행위를 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있을 수 있는 관점이나 태도의 차이를 폭넓게 관찰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분석과 함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주요하게 실시했다. <표 2>에서 보는 바처럼, 9명의 FGI 대상자를 우선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두 그룹(그룹1, 그룹2)은 일반 알바 평노동자들로 함께 묶고, 마지막 그룹3은 실제 청년 노동의 문제를 잘 인지하고 청년알바 관련 노조운동에 참여하거나 노동 권익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상근 활동가들로 섭외해 따로 묶어 인터뷰 논의를 진행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그룹3을 분리한 이유는 노동 활동가와 일반인이 섞여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노조간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대상자 사전 설문 내용

이름	그룹1			그룹2		
	A	P	K	H	Y	L
성별	여	여	남	여	여	남
나이	26	25	23	23	24	26
학력	대학생	대학 중퇴	대학생	대학생	대학 중퇴	대학생
현재직업	카페알바	시민단체 상근자	호텔뷔페 알바	사무보조자	알바연대 상근	연구소 연구보조
주 근로 일수(시간)	5(30)	6(42)	5(45)	2.5(24)	6(51)	3(20)
시급(원)	5,210	5,210	6,000	6,500	—	6,500
최근 알바경험 (개월 수)	카페알바(8) 스터디룸대여 알바(6) 백화점 입점 카페(12)	카페알바(10) 사무보조알바 (6) 아이스크림 알바(2) 문고캐서 알바(1) 음식점 서빙알바(2) 활동보조(3) 문구점알바(1) 호텔알바(1)	무응답	주차 도우미(5) 베이커리 캐서 등(3) 호프서빙(3) 편의점(7) 카페(7) 학원보조 강사(3) 사무실행정 보조(9) 교복판매(1)	패스트푸드점 알바 카페알바 호프집알바 PC방 피자가게 음료점 콜센터	연구보조(4) 문구쇼핑몰(6)
휴대전화 모델명	스카이 베가 R3	애플 아이폰 4S	무응답	스카이 베가 s5	삼성	삼성 갤럭시노트2
평균 통신비(달)	65,000	80,000	100,000	56,000	90,000	100,000

*자료: 2014년 2월에 진행된 총 세 그룹(9명)의 심층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인터뷰 '그룹3'은 비정규직이 아닌 알바노조 상근자 1명(위원장)과 청년 노동운동(청년유니온과 기본소득 청년네트워크) 상근 활동가 2인으로 일종의 월급을 받는 정규직인 관계로 시급 측정이 어려워 사전 설문 과정에서 생략.

부의 노동 현장 경험 등에 압도돼 평조합원들이 진술하려는 의도나 발언 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룹3의 심층인터뷰에 알바노조의 위원장과 소셜유니온의 상근 간부가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알바노동의 '모바일' 성격을 탐색하기 위해 보완적 기제이지만 이 연구의 중요한 산출물을 얻은 것은 참여관찰의 방법에서다. 참여관찰에 응했던 비정규직 알바 청년들(커피숍, 음식점, 극장, 미술관 등 시급 노동자들) 5명에 대해 각각 그들이 일하는 곳에 직접 방문해 손님으로 가서 앉아 있으면서, 매 10분 단위로 2~3시간여 그들의 노동형태, 일 수행의 동선, CCTV의 매장 위치, 관리자와 알바 노동자의 상호 대화 행위, 쉬면서 간간히 쓰는 휴대폰 사용방식을 눈 여겨 보고 이를 관찰 기록으로 정리했다. 또한 당시

표 3. 참여관찰 및 보충 인터뷰 대상자 사전설문 내용

이름	K	S	J	C	H
나이	24	26	22	22	24
성별	남	여	여	여	여
학력	대재(방통대)	대재	고졸	대재	대재
시급	5,580원	5,700원	6,000원	6,700원	5,210원
현 근무지	극장	미술관	식당	카페	커피숍
근무시간	매일 7시간	토, 일 11시~19시	주말 10시~21시 30분	월~금 17시~23시	주 14시간
주요 업무	검표, 매표, 매점 업무	관객 응대, 관람동선 안내, 전시장 상황 주시	서빙, 계산, 설거지	업무 시작 시 역할 배정	커피 및 와플 제조, 청소, 손님 응대
이전 알바 경험	호텔 4개월 근무, 주방보조	미술관 스텝, 영화관 스텝, 카페 음료제조 알바	빙수점 서빙과 제조, 뼈해장국집 서빙, 편의점 계산원	편의점, 아이스크림점, 카페, 술집서빙, 도너츠카페, 식당 등	카페, 편의점, 호프, 패스트푸드, 백화점 주차요원, 디자인 사무실 행정인턴 등
스마트폰 종류	2G 알뜰폰	아이폰5	갤럭시 S4줌	옵티머스 G프로	베가S5
평균 통신비(달)	10,000원	90,000원	53,000원	100,000원	60,000원
월 평균 휴대폰 이용 시간	통화 5시간, 인터넷 180시간	통화50시간, 인터넷200시간	통화 60시간, 인터넷90시간	통화 30시간, 인터넷 420시간	모닝콜, 수면 전 음악 청취 등을 포함해서 하루 20시간 정도, 월평균 600시간
근무 중 평균 휴대폰 이용 시간	20분	약 1시간	2시간 이하	1시간 이하	규정상 이용불가능, 하지만 점장 등 카톡 확인 요청 경우 근무 중 용인

*자료: 2015. 11~12월 사이 총 5명 참여관찰 대상자들의 사업장에서 각각 주어진 상황에 대한 관찰 기록 작업을 수행하고, 장소 변경 후 후속 보충 인터뷰 진행.

관찰 상황에 대한 의문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관찰 대상자들의 노동 시간이 종료되고 난 후 바로 다른 장소에서 그와 후속 보충 인터뷰들을 갖는 것으로 기록 작업을 마무리했다. 참여관찰 대상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4. 청년 알바의 재구성: ‘모바일 노동문화’의 다면적 관찰

1) 스마트폰과 청년알바의 신종 결합 방식

본 연구에서 관찰했던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알바노동 경험은 다양하다는 말로 표현해선 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 형태의 밑바닥 노동이나 서비스업 ‘그림자’ 노동(Illich, 1980/2015) 업종을 맴돌고 있었다. 특히, <표 2>와 <표 3>의 FGI 참여자와 참여관찰자들의 사전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 대다수가 일의 속성상 1년을 넘기 지 못하는 알바 노동을 전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적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1달 혹은 3~6개월 사이의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가 보통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118명의 알바 청년들의 기초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알바로 청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시급이나 노동시간에 따라 크게 편차들이 존재하지만, 대략 평균 7, 8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알바 노동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최저임금과 초과노동이 주로 지적됐고 그 외에 임금체불, 식사비나 교통비 미지급, 휴식시간 제공 거부, 보험 부담 거부, 주휴수당 미제공, 관리자의 과도한 감독 및 통제 등이 골고루 거론됐다.

본 연구에서 청년알바의 노동 현장 관찰에서 특이한 현상은, 거의 모두가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을 지닌 채 알바노동의 현장에서 각자의 일을 수행하면서 어딘가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메시지를 확인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도 기초 설문 응답자 가운데 알바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FGI 인터뷰 대상자나 관찰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작업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러저러한 용도로 틈틈이 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 노동과 모바일미디어 환경의 밀접한 관계 구도는 이미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바노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처음에 취하는 구직활동을 보면, 인터넷 검색과 휴대전화의 비정규직 업종 관련 모바일앱(알바몬, 알바천국 등) 개인정보 등록과 확인 과정이 일반적 수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청년과 스마트폰의 상호 관계성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청년들이 고강도 알바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 가운데 평균 9.5% 정도를 이동통신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사실이다(<표 1> 참고). 보통 이를 부모나 친지가 대납해주거나 자신의 용돈으로 통신비를 해결(전체 응답자의 26%)하기도 했지만,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청년들은 통신비를 직접 자신이 번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전체 응답자의 74%)가 일반적이었다. 구체적으로 통신비 납부 방식별(직접 납부와 대납)로 나눠 살펴봤더니, <표 4>에서처럼 특히 연령대가 높을 수록 평균 알바 수입이 높은 반면 자신의 수입에서 직접 요금을 지불하는 통신비 납부 비율

표 4. 청년알바 수입 중 이동통신 비용의 비중

통신비 마련 방식	휴대폰 사용연령	알바수입 평균(월)	통신비 평균(달)	통신비/월수입(%)
통신비 직접 납부(87명, 74%)	평균 28세 (주로 30대)	820,000	67,000	8.2%
통신비 대납 (31명, 26%)	평균 25세 (주로 20대)	510,000	70,000	13.8%

*자료: 총 유효설문 응답자 118명.

또한 컸다.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스마트폰이 거의 생존을 위한 보편적 미디어가 된 국내 상황에서 보자면, 이렇듯 어렵게 벌어들인 매달 수입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용 비중이 10%대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청년들의 생존 비용을 너무 쉽게 앗아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 게다가 통신 비용이 자동 결재 등을 통해 비용이 청구되어 부지불식간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청년 알바노동자들에게 통신사는 새로운 비가시적 권력이자 흡혈자로 숨어 기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청년네트워크 소속 회원이던 그룹3의 Z씨는 FGI 인터뷰 과정에서, 이미 이동통신 비용 부담이 청년들의 생존과 관련해 대단히 큰 문제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저희가 예전에 2012년도에 나름 청년과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생활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평균 15만 원 정도가 통신비로 나온다고 봤고, 그게 지출 중에 3위였어요. 주거비, 식비 다음에 통신비인거죠. 사실 그게 1명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10만 원 정도이고, 가구로 치면 50만 원 정도 거든요. 그때 저희도 좀 놀랐어요. 통신비가 그렇게 지출이 큰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FGI 그룹 3, Z씨, 2014. 2. 23).

통신비가 청년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생계비용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동통신사의 청년 수탈의 숨겨진 진실인데,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생활 주거나 식사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스마트폰이 생존의 필수 아이템이기도 하다는 점에 있다. 일반 대중에게도 그렇지만 청년에게 이제 스마트폰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들 신체의 중요한 미디어 기계적 연장(extension)이자 일부이기에 통신비 비용 문제는 더욱 본질적 차원에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미디어의 개혁-확산의 일반적 수용양식에 따르는 미디어 수용자적 지위에 있다기보다는, 휴대전화의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약정 가입해야 하고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전화기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강제 상황

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알바비로 (통신비를) 내고 있죠. 알바를 안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집에서 한발자국도 안 나간다고 해도, 교통비 필요 없고 식비도 없이 굶어가면서 산다 해도, 통신비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5만6천원이 제 (통신비)잖아요. 저는 이걸 살 때부터 기계 값을 생각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요금이 4만 원이 넘어야 그나마 사람이 쓸 수 있는 요금이지 않아요. 그러니깐 제 것은 “가장 싼 기계로 주세요”라고 해서 가장 싸게 한 다음 만든 요금이에요. 카페라틴가 출퇴근 관리에 있어서도 일단 요즘 사람들이 카톡으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3G가 안 켜져 있으면 카톡을 안볼 수도 있지만, 카톡으로 (점주가) “몇 시? 어디쯤 오고 있니? 왜 늦었어?”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 중간 중간에 (점주가) “밥 언제까지 먹어?”, “어디 있어?”, 이런 것도… 그리고,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콜택시 빨리 불러라,” “어디 진흥원에 서류 내려 가야 하는데 빨리 위치를 알아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업무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일 시작하고 나서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쓰잘데없는 앱들을 굉장히 많이 깔게 됐어요. 이게 업무에 있어서도 되게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이거는 없어서는 안돼요. 2G 폰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앱, 무슨 앱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그룹 2, H씨, 2014. 2. 23).

H씨는 FGI 논의를 통해 알바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청년들이 스마트폰 사양 조정이나 정액 요금 업그레이드 등 강제적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알바 청년들은 그렇게 생계가 쪼들려도 돈을 더 내서라도 휴대전화 사양과 데이터 추가 비용을 올려야 하고 항상 관리자를 위해 대기 모드에 임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이를 통해 알바 청년들 몸의 일부가 되는 경향이 커지고, 그들의 비정규 노동 현장에서도 함께 수족이 되어 따라 들어가게 된다. 즉 알바 노동에 스마트폰 기계가 노동의 일부로 함유해 들어와 하나가 되는 독특한 노동문화가 만들어진다. 즉 청년 노동의 일부가 된 기이한 스마트폰 문화, 다시 말해 ‘모바일 노동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 다른 논의를 보자.

저도 아르바이트할 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아르바이트 노동이란 것 자체가 단순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윌 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여윌 시간 내내 근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휴식시간이든 잠깐 쉼이든 이런 시간들에 사실 옆에 있는 동료와 대화하기보다는 일단 지쳐서 말이 나오기보다는 핸드폰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핸드폰으로 기사를 본다든지, 페이스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하나의 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있으면 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사업주들은 당연히 생각할 텐데, 그런 것들까지 막아서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 자체에 집중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 이것은 이미 하나의 자리 잡은, 일상화된 (모바일)문화로서 당연히 수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룹 3, A씨, 2014. 2. 23).

FGI 논의 과정에서 A씨가 언급했던 알바노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그의 견해는 꽤 새롭고 흥미롭다. 우리는 그의 언급에서 이미 비정규직 알바 노동의 지친 삶 깊숙이 들어온 모바일 노동문화를 누군가 강제로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룹 인터뷰 대상자 A는 합법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알바 현장들에서 청년들이 썹썹이 행하는 휴대전화 이용 방식을 비정규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공백 시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관찰을 수행했던 청년 대상자들 대부분 하루 6~7시간 일하면서 20분에서 1시간 정도 휴대전화를 사이사이 쓰면서 노동으로부터 간간히 이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적어도 알바 청년들에게 노동 중 휴대전화 사용은 합법적 휴식이 거의 없는 각박한 알바노동 현장에서 일종의 꿀맛 같은 휴식의 순간인 셈이다.

노조법상 (관리자는 노동자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죠. 그것도 사실 쉬는 것도 아니죠. 잠깐 일이 없을 때 핸드폰을 하는 정도인 거고, 휴식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저희(청년유니온)가 학원 강사들의 근로형태를 조사했거든요. 쉬는 시간 자체가, 하루에 보통 학원 강사들이 한 7~8시간 일을 하는데 수업이 계속 연달아 있다 보니깐 이 수업 끝나면 바로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루에 10분, 15분밖에 못 쉬고, 이에 대해 노동법에 나와 있는 휴식시간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CGV 영화 매표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출근을 하면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는, 아예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룹 3, K씨, 2014. 2. 23).

위의 소셜유니온 상근활동가 K씨의 모바일노동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그는 현재 국내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알바 청년들이 노동 중 휴대전화를 쓰는 행위 자체를 아예 비공식적 휴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앞서 알바노조 A씨와 흡사한 관점이다. 이는 필자가 2015~16년 사이에 도쿄 프리터나 대만 알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행했던 사업장 내 노동문화 현실과는 사뭇 상반된 견해들이다. 타이페이나 도쿄 등 동아시아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 관찰된 비정규직 청년들은 대체로 회사 규정상 노동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휴대전화를 작업장 밖에 보관하는 비정규직 직장 문화가 아직도 일반적이다. K씨가 언급한 우리의 CGV 매표소 직원의 사례가 타국에서는 일반적이다. 게다가 도쿄와 타이베이 같은 동아시아 대도시들의 비정규직 청년들 스스로 노동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자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다.

정리하자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해 한국 사회에서 청년알바는 휴대전화 없이 몸을 이끄는 알바노동이 거의 이뤄질 수 없는, 즉 노동환경 내 '모바일 노동문화'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즉 알바노동의 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작업장에서 중간 휴식 등 노동법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알바노동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이들에게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휴식과 자유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휴대전화가 알바 노동의 일부로 전면적으로 편입되는 순간, 또 다른 권력의 자장이 그 자유의 공백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 중 휴식이라 믿었던 청년들의 휴대전화 이용이 또 다른 형태의 노동 강도 강화나 노동 연장의 족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 거부하고 싶은 우울한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청년들의 노동 행태를 살피는 참여 관찰의 과정에서 징후적으로 발견했다.

2)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통제적 계기

현실계 육체노동과 가상 세계의 잉여노동을 일관되게 묶으려는 시장 지배의 의지는 노동 작업장 안팎을 전방위로 쉼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이동형 미디어 기술력에 크게 의존해 확대 재생산된다. 즉 그 중심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있는 것이다. 줌비, 난민, 잉여는 부유하는 청년 노동의 실존태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늘 이들의 신체에 수시로 접속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스마트폰 환경에서 청년 알바노동은 일과 외 휴식과 여가의 작업장 시간 바깥에서도 고용주의 통제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내에서 ‘카톡감옥’, ‘메신저감옥’ 등의 말이 직장인 신조어 1위로 등극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일에 더해 시·공간적으로 항시 대기 상태로 무인가 감정노동을 소모해야 하는 상태에 대다수의 국내 노동자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리적 장치에 부착된 초고속 인터넷망의 시·공간적 속도나 이동 능력도 자본 권력에 미치지 않은 상황에 이른 것일까? 스마트폰 기기는 일과 활동,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찰나적 순간에 상호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분리된 듯 보였던 분리와 경계를 완전히 흐트러뜨린다. 그러면서 현실의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일하면서 가상세계의 활동과 은밀히 마주하고 반대로 놀이하면서 일하는, 순간적인 가상-현실간 단속(on-off)의 빠른 전환이나 동시 상황이 늘 일상화한다. 두 층위의 다른 현실을 매초마다 끊임없이 들락거리고 항시 양계(兩界)에 순간적으로 접속하고 이동하는 것이 오늘날 모바일 기술이 부여하는 능력이다. 현실-가상의 순간 이동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지면서 노동에 대한 시·공간의 의식적 경계와 분리가 무너진다. 스마트폰은 신체 자유를 준 듯 보이지만 결국 노동 속박의 연장으로 돌변한다. 청년 알바노동자들의 모바일노동은 현실의 그림자 노동과 ‘잉여짓’을 빠르게 순간 전환하면서 단속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동시성을 증폭시킨다. 스마트폰은 그렇게 온·오프라인에서 노동하는 청년 신체의 관리장치가 된다.

모바일 미디어는 무엇보다 청년 알바노동을 적절히 원격으로 관리하는 쪽의 통제 능력을 크게 신장한다.⁴⁾ 스마트폰과 같이 몸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모바일 기기들은 주로 비정규직 청년의 일상에 대한 통제 장치 노릇을 자처한다. 청년들이 이 첨단 놀이 기기들을 집어 드는 대가는 휴식의 꿀맛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위해 홀로 남겨진 모든 시간(‘멍때리기’와 진정한 휴식의 자율 시간)을 유보한다는 점이다. 늘 고용주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청년 알바의 일과 시간은 물론이고 그들의 일과 외 시간과 신체 동선의 움직임과 감정까지도 원격 관리하려는 욕망을 확대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점주와 매니저는 매장의 CCTV를 볼 수 있는 원격 스크린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매장 바깥에서도 고용된 알바 청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익숙하다. 특히 매장을 여러 개 거느린 업주의 경우나 매장에 온종일 매달려 있기가 어려운 점주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원격으로 모바일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다. 이 경우에 주인은 매장 홀에 잡히는 손님들의 모습보다는 주방과 카운터에 머무르며 일하는 피고용인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실시간 영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 다음의 모바일노동 관찰 사례를 보자.⁵⁾

4) 원격 통제와 관련하여 일부 참여관찰 분석 내용은 이광석(2015) 참고.

5) H씨, 참여관찰 및 후속 인터뷰, 2015. 2. 13~14. 24~02시, 장소: 커피전문점.

H씨: 저희 사장님이 (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장 나가는 출입문 쪽에 CCTV가 있는 건 맞는데, 부엌 안에 설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관찰자: 부엌 안에도 있어요? 난 안보이니까 설치가 안 돼 있는지 알았지.

H씨: 네, 설치돼 있어요. 카운터에, 그리고 여기저기에... (다른 카메라들은) 별 의미가 없고 어쨌거나 (중요하게는) 세 대가 있는데, 하나 정도가 카운터 쪽을 비치는 거예요. 카운터를 제대로 비치고 있고, 그래서 카운터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관찰자: (부엌) 그 안에도 하나가 달려 있나요?

H씨: 네. 설거지 하던 안쪽 가끔 가다가 다른 알바 분이 안쪽 문 열면 의자가 있거든요. 그걸 끌고 와서 앉았어요. 그것을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의자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저도 옆에서 그걸 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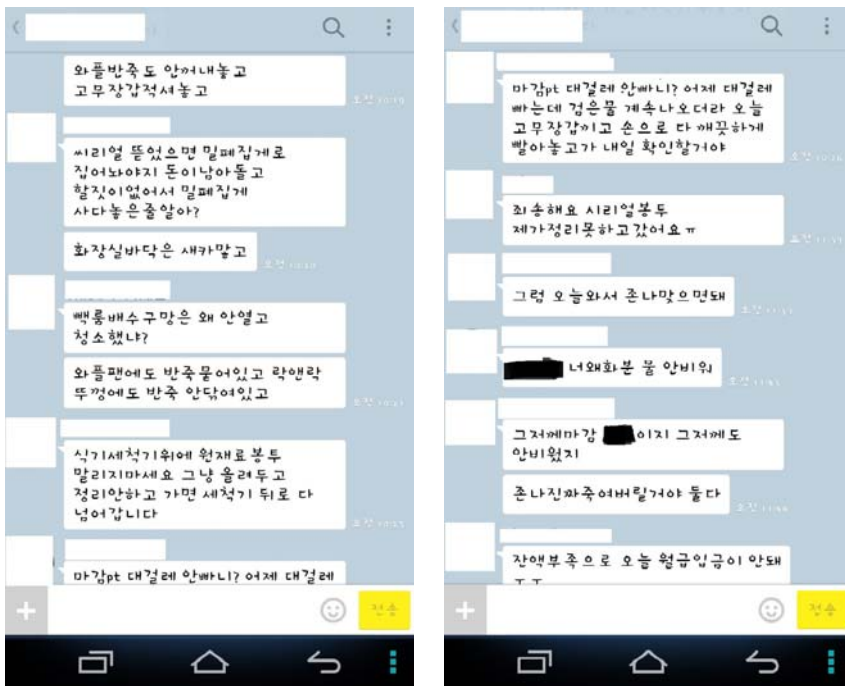
관찰자: 외부에서 CCTV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H씨: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커피점에서 일하는 H씨의 경우에는 꽤 드물게도 근무 중 휴대폰 이용이 규정상 금지이다. 하지만, CCTV와 연동된 주인의 스마트폰 스크린에는 늘 그를 포함해 청년 알바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통제의 시선이 머문다. 매장 주인이나 점주는 보통 스마트폰 CCTV 앱으로 알바 청년들을 원격 감시할 수도 있고, 알바 근무 시간 외에도 그들을 끊임없이 휴대전화와 문자로, 그리고 카카오톡 등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명령한다. 즉 카카오톡 앱에 여러 개 운영되는 단체 대화방(단톡방)들, 예를 들면 점주, 점장, 매니저, 알바 동기 단톡방들을 각각 따로 개설해 업무 시간 외에도 해야 할 일을 지시하거나 평가한다. 이어지는 H씨의 진술은 단톡방에 의해 야기된 알바 노동의 변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⁶⁾

여기가 심했는데, 사실상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일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더더욱 카톡을 안 쓴다는 거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공지도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카톡을 안 쓰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죠. 사실상 지금 3개(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따로) 노는 방, 친목을 다지는 방이 있고. 강압적인 뉘앙스가 있는 친목을 다지는 방이에요. 이는 부점장님이 우릴 초대한 방이에요. 알바생과 피티생(파트타이머) 다 같이 있는 혼내는 방, 공지 전달하는 방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알바생들과 사장님이 같이 있는 방인데, 여기서도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일을 하죠.

그림 1. 매장 매니저와 알바 청년들의 단톡 대화방 내용



사장님이 저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내릴 때라든지, 이럴 때 쓰는 방 세 개가 있어요. 그 전에도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그 전에 한 일 년 전에 있었던 카페에서도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때는 방이 하나이기도 했거니와, 거기에는 정말 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항시적으로 있는 사업장이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위의 눈치를 보고 아래를 컨트롤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덜했는데, 직접 아이들을 판단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는 두 명만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일을 하니까 여긴 좀 심하더라고요….

H씨의 진술에서, 우리는 청년 알바노동에서 단톡방이 차지하는 위상이 모바일노동의 감정소모를 과다하게 일으키는 던전(게임 속 지하감옥)과 같은 억압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작업장 내 관리자 기능을 대신해 기능적으로 여러 개의 단톡방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알바노동의 훈육과 통제를 위해 노동 안팎 시·공간에 내밀하게 끼어드는 것이다. 다음 익명의 알바 청년노동자 단톡방 메시지를 더 들여다보자.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알바노동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암묵적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모바일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바로 업무 시간 외 사장과 매니저가 만든 각각의 비공개 전자 공간들에서 알바 청년들은 각기 다른 폭언과 명령을 들으면서 근무 시간 외 감정노동을 허비한다. 이 단톡 대화방은 사장이 운영하는 대화방과 별도로 사장이 고용한 매니저가 알바생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한 온라인대화 공간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니저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알바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 즉시 언제 어디서든 문자나 인증샷 등으로 보내오는 지시사항에 응답해야 한다. 대화방은 방의 성격, 즉 누가 그 방의 실질적 명령권자인지에 따라서 알바 청년의 근무 외 감정노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바 청년들은 근무 외 자유 시간에도 수행했던 일에 대한 평가와 지적 사항을 들어야 하고, 새로운 일거리와 해당 설교를 들어야 하고, 임금 체불을 무마하는 문자 한 줄에 일희일비해야 하고, 사장과 매니저의 문자에 답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폭력적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억압적이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감정적 통제와 억압이 단톡 대화방을 매개로 알바 청년의 일상 영역으로 확장되고 계속해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사롭고 친분에 의해 구성되는 모바일 채팅 앱들, 카카오톡과 밴드 등이 이제 사회적 권위와 부당노동 행위를 확장하는 일과 자연스레 연계돼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알바들은 시급의 정해진 테두리 바깥에서도 모바일 기술문화와 더불어 계속해 노동의 연장에 강제 합류하고 있다. 업주, 점주, 매니저 등은 여러 개의 단톡방을 만들어놓고 근무 시간 외에도 알바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어 수시로 일과 관계된 감정노동을 강요하고 작업장 밖에서도 상황을 관리 감독하려 한다. 바로 전날 알바 근무 성실도, 청소 상태, 과업 수행, 조직 윤리 등 고용주들은 설 새 없이 문자 메시지, 단톡방, 모바일 앱 등의 경로를 통해 노동성과를 통제하려 한다. 일상에서도 일의 연장이 이뤄지고 문자 스트레스 등 감정상의 노동을 계속해 유발하는 것이다. H씨는 단톡방의 정서적 억압은 물론이고, 점주에 의한 개인 용무의 카톡 피해 사례까지 들고 있다.⁷⁾

예를 들어서, 언제 한번은 아홉시 출근일이 있었는데, 8:36분에 카톡이 와요, 빨리 오라고. “빨리 와! 매장 바빠.” 언제 한번은 새벽에 시험 볼 때도 시험 보는 중간에, “시험 끝나면 연락을 해라, 할 얘기가 있다.” 언제는 새벽 1시에 자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날 3시에 출근이었는데, 나오지 말라고 새벽에도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연락 안하면 “본 거냐 안 본거냐, 대답해라. 나오는 거 아니다”라고 연락을 하고….

7) H씨, 앞의 관찰 및 인터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J씨(22살)는 카톡과 단톡방이 없었던, 예전 알바 노동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격세지감을 토로한다.⁸⁾

예전에는 애시당초 (매장의) 점장도 휴대폰을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카톡도 없었고 문자 메시지로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카톡이나 밴드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근무 때 압축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 외 시간에 지시를 계속 내리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이 이렇게 매장 관리자와 점주를 위해서 알바노동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은 노동 중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며 이를 자신의 노동문화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경향 또한 커졌다. 예컨대, 업종에 따라서 근무 중 잠깐의 휴대폰 검색 ‘농땡이’나 친지에게 ‘카톡 문자 보내기’ 등은 업장 관리자의 묵인 하에 일상화 한다. 비정규직 영업장 내부 CCTV와 점주의 시선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에서 행하는 소소한 문자 보내기나 뉴스검색 등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이다. 앞서 청년 노조 간부들이 FGI에서 언급했던 바처럼, 알바노동 중 청년들이 휴대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잠깐의 모바일 휴식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된다. 이는 대체로 사업자가 근무지나 근무 외 시간에 청년 노동자와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과업을 처리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 대체로 묵인하거나 더 용인하는 경향이 크다. 명동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일하는 알바 청년 C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⁹⁾

관찰자: (매장) 안쪽 주방이 궁금한 게, 알바생들이 들어가서 음료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주방 안이 잘 안보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휴대폰 쓰고 그래요?

C씨: 네. 직원들 밖에 있고 그럴 땐 그 안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안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휴대폰 진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밖에서 일할 때 직원들이 다 밖에 있을 때는 휴대폰 만지지도 못해요.

관찰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수록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

C씨: 네 핸드폰 계속 사용하고, 직원분들 없을 때는 상시적으로 사용해요. 저도 평균적으로 한 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안쪽에서 일할 때는 더 많이 사용해요.

8) J씨, 참여관찰 및 후속 보충 인터뷰, 2015. 2. 15. 21~23시, 장소: 시내 레스토랑.

9) C씨, 참여관찰 및 후속 보충 인터뷰, 2015. 2. 11. 21~24시, 장소: 전통차 체인점.

관찰자: 그러면 안쪽에는 카메라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C씨: 네. 안쪽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관찰자: 그걸로 주의를 하거나 그래요? 안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터치가 안 되겠네요? 근데 점장, 시니어, 주니어 (매니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C씨: 네. 그래서 눈치보고 (사용하고 그러죠).

C씨는 앞서 H씨에 비해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해 근로 환경이 좀 나은 편이다. H씨와 달리 C씨의 근로조건은 점주의 CCTV를 피하는 법을 쉽게 터득하고 그 반경으로부터 벗어나 한갓질 때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거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좀 더 자유롭고 꽤 탈주적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인이나 매니저는 알바 청년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반면 알바 노동자는 본능적으로 ‘게으를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휴대전화에 각각 의지하고 필요로 한다. 노동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휴대폰은 알바노동 중 잠깐 쉬어 가는 비공식 휴식 시간과 비슷해져 간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례를 보자.¹⁰⁾

관찰자: 휴대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J씨: 뭐 한다 그러면, 휴식 정도(의 의미)?

관찰자: 근무지 안에서는?

J씨: 네. 카톡 오면 확인하고, 손님 안 들어오면 실 때 이용하는 정도...

관찰자: CCTV가 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돼 있던데... 주방 안에도 있는 거예요?

J씨: 네. 되게 많아요. 심지어 밥 먹는 데도 있어요. 뒤에 테이블이 있고, ...그 뒤쪽에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로 된 서랍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뒤돌아서서 (휴대폰을) 해야 해요.

관찰자: 거기가 사각지대군요?

J씨: 거기에서 벌 서는 것처럼 구석에서 해야 해요. 밥 먹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점장이) 하게 내버려두거든요. 근무시간에는 (그 곳 통로에서 잠깐씩) 그렇게 해야 해요.

J씨는 알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을 잠깐씩 하는 데 익숙하다. 이를 마치 쉬면서 음료수로 목을 축이는 행위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이들 진술과 관찰은 앞서 청년노조 간부들의

의견과 구체적으로 일치한다. 짬짬이 하는 스마트폰 사용은 시급의 짝 짜여진 노동 강도와 환경 안에서 지친 청년 알바들에게 가문의 단비로 여겨질 것이다. 물론 이는 점주와 매니저의 실제 시선과 CCTV의 렌즈를 피해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용인된다. 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알바 청년의 업무 시간 외 호출과 명령을 용이하게 하려면 노동의 성과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과 묵인을 할 수 밖에 없다. 청년 알바들은 그 묵인의 노동 규칙 안에서 적정하게 휴대폰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묘한 모바일 노동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점주와 관리자는 스마트폰을 매개한 노동 통제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업장 내 모바일 기기를 점점 용인하는 추세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알바 청년들 또한 휴대폰 사용을 심하게 제약하는 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관리자 또한 어쩔 수 없이 알바 청년의 휴대폰 일시 사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알바노동에서 휴대전화를 매개해 미묘한 노동 통제와 탈주의 선들이 맞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우울한 진실은 알바 청년이 어렵사리 얻은 모바일노동 가운데 몇 분 몇 초 간격의 ‘농땡이’ 행위조차 노동 외 관리자의 시간 구속을 예비하기 위한 암묵적 묵인이거나 곧 있을 단톡방에서의 감정노동의 연장이거나 닷컴 플랫폼을 위해 청년 잉여들의 ‘끊김이 없는(seamless)’ 데이터 생산을 위해 그 시간들이 쉽게 전유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가정에서 보자면, 일터에서 관리자 뒤에 숨어 알바 청년들이 모바일 기기 창(윈도우)에 남기는 감정의 찌꺼기(배설물)가 디지털 ‘잉여’가 되어 플랫폼 브로커의 재물이 될 공산 또한 존재한다. 스스로 꽤 잘 관리자의 눈을 피해 쉬었다고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이 과연 온전히 탈주나 휴식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 딜레마가 제기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스마트폰은 청년 알바들에게 소통과 구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실제 그 용도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청년들의 장사 밑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때는 알바 일터에서 점장의 실시간 원격 통제와 명령 수행 기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때는 새로운 문화소비의 게이트이자 수많은 청년 ‘잉여’들이 시간 날 때마다 SNS나 카카오톡을 통해 낯선 이들과 이바구를 늘어놓는 배설의 전자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알바 노동에 지친 청년이 손에 쥔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든 통제의 편재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기술적 매개체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진정 우울하다.

5. 나오는 글: 모바일 청년 노동문화의 다른 경로

비록 제한적인 연구 조사와 관찰로 인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알바 청년노동자들이 동시대 모바일기술과 맺는 관계는 놀이와 휴식의 용도보다는 새롭게 알바 현장 안팎 육체와 감정 수탈의 방식으로 매개되고 확장되면서 크게 뒤틀려 있다는 점을 징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에 비해 테크노공간은 이제까지 청년의 재기발랄함이 분출하는 탈주의 영역에 가까웠다. 대개 연구자들은 그렇게들 해석해 왔다. 하지만, 주로 비정규 직종에서 일하는 알바 청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점점 더 온라인 청년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유리감옥’으로 탈바꿈 중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의 노동 사회는 노동과 활동,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분리된 경계들을 뒤흔들며 그것을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첨단 의 모바일 기술과 미디어는 이들 분리된 경계를 매끈하게 잇고, 그나마 자기 재생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알바 청년들의 숨통까지 턱하니 막아버린다. 이제 청년 노동의 형식에서 현실 쯔미노동에서 온라인 잉여노동으로의 알바노동 형식의 다면화는 물론이고, 또 한 번 모바일 미디어가 매개되면서 매우 치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중요한 노동통제 기능을 떠맡는 ‘모바일 노동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노동 현실에서 오는 삶의 억압적 상황에 더해서, 모바일 기술에 의지한 노동의 비공식적 관리 통제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आरो새겨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불안한 물질노동은 물론이고 온라인 및 모바일 활동이 거의 모두 다 노동으로 환산된 채 쯔미와 잉여가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청년 자신이 자립과 자율 활동의 이질적 시간과 공간 혹은 ‘반-시·공간(헤테로토피아-크로니아(hétéro-topie/-chronie))’¹¹⁾들을 구성할 수 있을까? 청년의 존재는 해당 사회의 성숙도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 통제의 시간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우리가 청년노동 수탈의 테크노미디어적 굴절 형태만이라도 제거하는 수준에서 한 두 가지 실마리를 던져볼 필요는 있겠다.

무엇보다 점점 치밀해져가는 노동통제와 권력 확장의 (모바일) 기술적 장치를 막을 수 있는 일시적 수단은 외부의 불순한 전자적 방식의 접속과 연결로부터 과감히 단절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 수준에서 어렵다면 사회 제도적으로 이의 조건

11) 푸코는 현실 체제의 정상성 혹은 체제의 맥락을 벗어나는 반/대항-공간(contre-espaces) 배치의 현존태를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로,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대안 시간적 흐름을 ‘헤테로크로니아(hétérochronie)’로 명명한다. 푸코(Foucault, 2009/2016) 참고.

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에 프랑스는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le droit de la déconnexion)’에 관한 노동법을 입법 발효했다(Collins, 2016, 5, 24). 그 내용은 주 중 35시간 법정 노동시간에 더해서 일과 외 시간들 그리고 주말에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을 불법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인권 조항을 포함한다. 모든 시·공간을 동질적 노동의 가치로 확장하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몸에 부착된 모바일 기계 장치의 가동과 외부로부터의 강제 접속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 프랑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카톡과 단톡과 문자로 노동자와 사회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중요한 법적 선례다. 국내 알바 청년의 모바일노동의 조건을 고려하자면, 이 법안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술에 기댄 사업자의 노동통제 욕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 입법이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범위와 관점의 한계이기도 한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스마트폰의 강제적이고 억압적 쓰임새를 보았지만 향후 모바일노동과 관련해 청년노동과 관련해 스마트폰이 지닐 수 있는 해방적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소극적인 방식이지만 노동 중 짬짬이 휴식처럼 행하는 스마트폰 사용이 갖는 미묘한 노동권리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서부터, 알바 청년들이 노동 부당행위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로하고 이를 여론의 광장으로 삼는 경우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매개해 부당한 노동 관행들을 폭로하고 공론화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의 노동현장 증거 채집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일단 온라인 여론이 조성되면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 등 청년 노동단체들이 개별 노동자를 대신해 해당 점주나 사장을 압박해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면서, 이와 같은 전자행동주의 방식이 모바일노동문화의 일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해결 방식은 대체로 소규모 영업장 점주들만의 반노동 인권 행태에 대한 도덕적 고발 형식에 그친다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즉 대기업들이 시도하는 광범위한 청년 알바와 인턴 고용과 불법 관행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¹²⁾ 어찌됐건 일종의 알바 노동권 관련 스마트폰이 매개된 ‘모바일 행동주의’라 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향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 현실과 가상을 춤추며 구획 짓고 몸을 순응시키는 오늘 체제가 강요하는 ‘모바일 노동문화’에 대항하려는 근본 기획은, 청년 자신을 위해 쓰일 여백의 시·공간을 근원적으

12) 「서울시 25개구 아르바이트 현황」 자료(2015)에 따르면, 오히려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은 음식점·레스토랑의 평균 시급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가 좀 더 평균 시급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로 마련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통치의 시간 계획은 강제된 노동 시간은 물론이고 이들 청년의 여가와 잉여의 시간까지도 잠식하는 데 있다. 더군다나 권력의 공간 논리 또한 청년이 향유해야 할 여백의 공간을 자본의 노동 공간으로 재편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생존의 무게뿐만 아니라 모바일 노동기계의 일부가 되어가는 청년 삶의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노동조건에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본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을 억압해온 테크노미디어를 반역의 기술로 재설계해 통제 현실을 뒤바꾸려는 또 다른 사회적 상상력 없이는 일상적 노동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들 자신을 위한 여백의 시·공간은 요원하리라 본다.

참고 문헌

- 김강한·임경엽·장형태 (2015, 2, 23). '달관 세대'가 사는 법1: 덜 벌어도 덜 일하니까 행복하다는 그들...불행이 낳은 '達觀(달관) 세대. <조선일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3/2015022300056.html
- 미스핏츠 (2016). <청년, 난민되다: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탐사 르포르타주>. 서울: 코난북스.
- 윤종석 (2014). 중국의 농민공과 체제전환. <국제노동브리프>, 12권 2호, 100-109.
- 이광석 (2015). '청년알바'의 일상과 스마트폰 문화. <ICT인문사회융합동향>(35-41쪽).
- 이광수 (2015). 대만의 '딸기족'은 무엇을 꿈꾸나?: '소확행' 추구에 몰두하는 대만청년. <프레시안>. UR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719&ref=nav_search
- 이희은 (2014). 디지털 노동의 불안과 희망.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211-241.
- 정규식 (2016). <중국 신공런(新工人)의 집단적 저항과 공회의 전환>. 2016 한국산업노동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저성장시대의 산업과 노동'.
- 조문영·이민영·김수정·우승현·최희정·정가영·김주은 (2017). <헬조선 인 앤 아웃: 떠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서성이는 사람, 한국 청년 글로벌 이동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 서울: 놀민.
- 조한혜정 외 (2016). <노오력의 배신: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파주: 창비.
- 최태섭 (2013). <잉여사회: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파주: 웅진씽크빅.
- 한윤형 (2013).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서울: 어크로스.
- 古市憲寿 (2010). <希望難民ご一行様 ピースボートと「承認の共同体」幻想>. 이연숙 (역) (2016). <희망난민: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에 꿈을 강요당하는 젊은이들>. 서울: 민음사.
- 古市憲寿 (2011). <絶望の国の幸福な若者たち>. 이연숙 (역) (2014).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서울: 민음사.
- 林宗弘·洪敬舒·李健鴻·王兆慶·張烽益 (2011). <崩世代: 財團化, 貧窮化與少子女化的危機> 台灣勞工陣線.
- Bourdieu, P. (2003). *Firing back: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rket 2*. New York, NY: Verso.
- Collins, L. (2016, 5, 24). The French counterstrike against work e-mail. *The New Yorker*. Retrieved from <http://www.newyorker.com/culture/cultural-comment/the-french-counters-trike-against-work-e-mail>
- Foucault, M. (2009). *Corps utopique: Suivi de Les hétérotopies*. 이상길 (역) (2016).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 Illich, I. (1980). *Shadow work*. 노승영 (역) (2015). <그림자 노동>. 고양: 사월의책.
- Mie, A. (2013, 6, 25). Unpaid overtime excesses hit young. *Japan Times*. Retrieved from <http://www.japantimes.co.jp/news/2013/06/25/reference/unpaid-overtime-excesses-hit-young/>

- Qiu, J. L. (2009). *Working-class network societ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formation have-less*. MA: the MIT Press.
- Shaviro, S. (2002). Capitalist monsters. *Historical Materialism*, 10(4), 281-290.
- Terranova, T. (2012). Free labor. In T. Scholz (Ed.), *Digital labou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pp. 33-57). London, UK: Routledge.

투고일자: 2017. 4. 6. 게재확정일자: 2017. 5. 24. 최종수정일자: 2017. 5. 26.

The Techno-mediated Rebirth of Young Precariat's Working Conditions Today

Kwang-Suk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 Cultural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dialectic tensions arising within the ICT-mediated labor culture between the dominant power of conglomerates and the precarious labor subjects in the labor practices, as smartphones and tablet PCs have grown in popularity. The present study explores how much young precarious workers named '*Cheongyeon Alba*' (young precariat in S Korea) suffers from continually precarious job positions as temporary staff or contract workers, being trapped at the bottom of the pay scale, and also being electronically connected to the workplace in a seamless way. Concretel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mobile phone becomes deeply entangled with the 'precarious' labor culture in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The mobile precariat has been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terms not only of the moral issue of exploitation in business but also of social injustice. Labor exploitation of young workers has been reinforced by the mobile labor culture, in which they are remotely monitored by live surveillance mobile apps, and mobile instant messaging from a boss can intrude incessantly into their private life. This study depicts the extension of the business's surveillant power by mobilizing the mobile phone in the working practices.

K E Y W O R D S youth, mobile labor, zombie labor, 'alba' labor, non-regular worker, kakaotalk, surveillance, smartphone